



월드컵 앞둔 '벨호' 옥석 가리기 시작 대한민국 여자축구 국가대표팀 콜린 벨 감독을 비롯한 선수들이 18일 오전 경기 파주 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NFC)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여자축구 대표팀은 오는 7월 8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아이티와 평가전을 갖는다. /뉴시스

전남 육상 전국대회 금 3·은 5·동 4

장흥군청 김장우 세단뛰기 대회 신기록 작성



남자 육상 세단뛰기 선수 김장우(오른쪽 두번째). /전남체육회 제공

전남육상팀 김장우(장흥군청)가 세단뛰기 대회 신기록을 작성하는 등 전국대회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5개, 동메달 4개를 수확했다. 전남도체육회는 나주종합스포츠파크에서 열린 제27회 전국실업연맹육상선수권대회에서 전남이 금 3개, 은 5개, 동 4개 등 총 12개의 메달을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김장우는 이번대회 남자부 세단뛰기 출전해 3차 시기에서 16.50m를 기록해 대회신기록을 작성했다. 이어 6차시기에서는 자신의 기록을 16.73m로 늘리며 남수환(제주시청·15.53m)과 김동한(안동시청·15.49m)을 압도하며 1위를 차지했다. 여자 해머던지기 박서진(목포시청)은 57m57을 던져 금메달을 획

득했다. 또 이아영(광양시청)도 400m에서 56초69의 기록으로 세 번째 금메달을 안겼다. 남자 해머던지기 김진(목포시청)은 61.26m로 은메달, 여자부 1만m에서 김은미(여주시청)가 36분17초 45로 은메달, 여자부 높이뛰기 김은정(여주시청)이 1m60으로 은메달, 여자부 포환던지기 정소은(목포시청)이 15m09로 은메달, 여자부 해머던지기 권수아(장흥군청)가 54m42를 던져 은메달을 획득했다. 이 밖에 이승호(광양시청)가 남자부 10종경기에서 3297점으로 동메달, 남자부 800m에서 김동욱(나주시청)이 1분53초로 동메달, 여자부 5000m에 출전한 김은미(여주시청)·여자부 3200m 계주에서 각각 3위를 차지했다.

중국, 韓 국가대표 손준호 정식 수사



중국 공안이 한국 축구 대표팀 미드필더 손준호(산둥 타이산)에 대한 공식적인 수사를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공안이 한국 축구 대표팀 미드필더 손준호(산둥 타이산)에 대한 공식적인 수사를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中 현지 매체 보도...축구협회 당혹 클린스만 지지 발언에도 중국 공안 수사 지속

중국 현지 매체들은 손준호의 형사 구류 기간이 지난 17일 만료됐고 이에 따라 중국 검찰이 손준호의 구속을 비준했다고 보도했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중국 당국이 손준호의 혐의를 정했고 이에 따라 입건이나 기소에 해당하는 이번 결정을 내렸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 같은 소식에 대한축구협회는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대한축구협회와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은 6월 A매치 소집 선수 명단에 손준호를 포함시키면서 중국 측에 무언의 압박을 보냈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이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손준호가 정식으로 수사를 받게 됨으로써 현 한국 A대표팀 주축 미드필더가 중국 공안에 불합치 공식적으로 수사를 받는 조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됐다. 손준호를 풀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클린스만 감독 역시 난처해지게 됐다. 오는 20일 열살바도르전을 앞두고 클린스만 감독이 손준호 문제에 관해 어떤 형태로든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 경우 손준호 사태의 파장은 한국과 중국 간 문제를 넘어 독일은 물론 국제 축구계에까지 번질 수 있다. /뉴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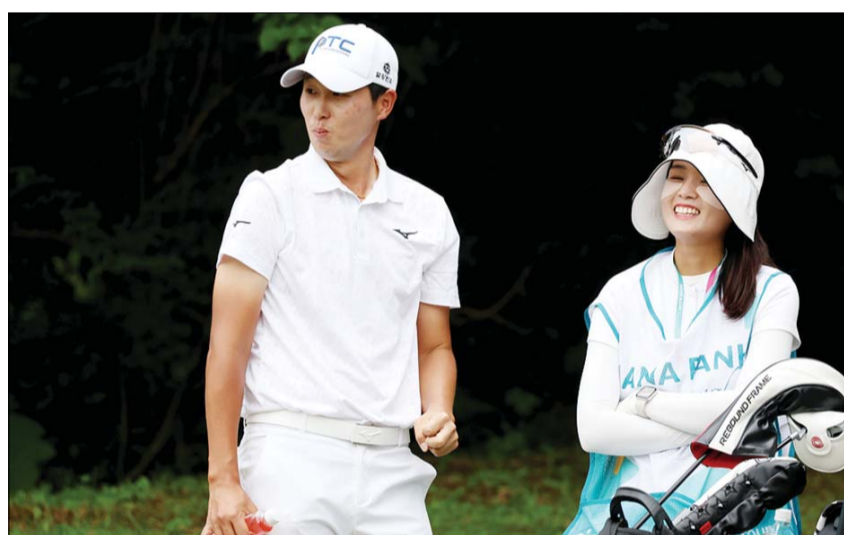
최하위 추락 위기 삼성 '분노 표출' 오승환 1군 제외

이례적으로 분노를 표출한 오승환(41·삼성 라이온즈)이 엔트리에서 제외됐다. 삼성은 18일 수원 KT 위즈파크에서 열리는 KT 위즈와 경기를 앞두고 오승환을 말소했다.

삼성엔 최근 5연패에 빠지며 꼴찌 추락 위기에 몰려있다. 반등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베테랑 마무리 투수인 오승환을 1군에서 빼는 결단을 내렸다. 오승환은 지난 16일 KT전에 팀이 6-4로 앞선 8회말 구원 등판했다. 첫 타자 정준영에게 번트 안타를 맞은 오승환은 후속 박경수에 중견수 키를 넘어가는 2루타를 허용해 실점했다. 중견수 김현준이 타구를 쫓았지만, 잡아내지 못했다. 아쉬운 표정으로 숨을 고른 오승환은 계속된 무사 2루에서 안치영에 희생번트를 내줬다. 그러자 정현욱 투수 코치가 투수 교체에 대해 마운드로 향했다. 투수가 7개에 그쳤던 오승환은 화가난 표정으로 들고 있던 공을 관중석 쪽으로 던졌다. 이어 더그아웃에서는 글러브를 내던지기도 했다. 최하위 추락 위기에, 베테랑 오승환까지 중심을 잡아주지 못하면서 삼성은 크게 휘청이고 있다.

아내와 호흡 맞춘 양지호, 하나은행 인비테이셔널 '우승'

장동규와 나카지마 케이타 추격 뿌리쳐
지난해 KB금융 리브챔피언십 이어 통산 2승



양지호 2번째 티그라운드 아내와 즐거운 대화.

캐디를 맡은 아내와 호흡을 맞춘 양지호(34)가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아투어 하나은행 인비테이셔널(총상금 10억원)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양지호는 18일(한국시간) 일본 지바의 이즈미 골프클럽(파73)에서 열린 대회 4라운드에서 6타를 줄여 최종 합계 20언더파로 1위로 대회를

마쳤다. 양지호는 이날 보기를 1개 범했지만 12번홀 이글을 비롯해 버디 5개 잡아내며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전남 공동 2위였던 양지호는 전날 공동 선두 장동규와 나카지마 케이타(일본)의 추격을 뿌리치고 우승에 골인했다. /뉴시스

광주지역 골프 레슨의 끝판

골프 트레이닝 전문점

골프PT & 골프필라테스

제형교정 | 비거리 향상
동작분석 | 운동재활
부상방지 | 재활트레이닝
필드레슨 | 스윙체크 및 기본기

트레이닝 경력 13년
대학교 겸임교수 출강 경력 다수
(운동역학·트레이닝법 등)
KPGA·KLPGA 프로 트레이닝
TPI전문가 김용규 트레이너

#광주 선수트레이닝 #광주트레이닝센터 #선수트레이닝 #골프트레이닝

Ch 광주선수트레이닝센터-골프[GOLFIT]

010-7773-6661

광주 서구 시청로64 QED골프센터 2층 1호

영업시간
월요일~토요일
09:00 AM ~ 21:00 PM
※ 주말은 예약필수

